

No. 53

**거골의 골연골 병변에 대한 수술적 치료후
-자가 골연골 이식과 미세 골절술의 비교-
Second-look Arthroscopy after Surgical Treatment
of Osteochondral Lesion of Talus
-Comparison of Osteochondral Autograft and
Microfracture-**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이근배 · 최 진 · 김병수 · 조성범 · 송은규 · 선종근

서 론

거골의 증상이 있는 골연골 병변에 대한 수술적 치료(자가 골연골 이식 또는 미세 골절술)후 연골 치유 과정의 평가를 위한 이차적 관절경술의 결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재료 및 방법

2004년 12월에서 2005년 10월 사이에 증상이 있는 거골의 골연골 병변에 대해 자가 골연골 이식술 또는 미세 골절술을 시행받은 환자 중 술 후 6개월 또는 1년째 이차적 관절경술이 가능하였던 각각 6예, 총12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처음 수술 당시 평균 연령은 41.5세 (범위, 20~53세)였다. 이차적 관절경술은 두 군 각각 5예에서 6개월째, 1예에서 1년째 시행하였다. 거골 결손 부위의 평균 크기는 자가 골연골 이식술을 시행한 군이 10.2 x 16.2 mm, 미세 골절술을 시행한 군이 10.0 x 10.8 mm였다.

술 전 및 술 후 족관절 기능은 Freiburg 족관절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이차적 관절경술시 연골의 상태는 Insall의 연골 연화증에 대한 4단계 분류를 이용하였다. 자가 골연골 이식은 족관절 내과의 절골술을 이용하여 동측 슬관절의 상외측에서 2개 또는 3개의 골연골을 채취하였다.

결 과

이차적 관절경술시 Freiburg 족관절 기능 점수는 매우 우수 8예 (67%), 우수 4예 (33%)의 결과를 보였다. 자가골 연골 이식술을 받은 6예는 모두 매우 우수 소견을 보였으며, 미세 골절술 6예 중 2예는 매우 우수, 나머지 4예는 우수의 결과를 보였다. 이차적 관절경 소견상 7예 (자가 골연골 이식술 5예, 미세 골절술 2예)에서 병변과 주변의

정상 연골 사이에 연속성 (Grade I)이 관찰되었다. 자가 골연골 이식술을 시행했던 1예에서 이식 연골의 Softening과 Fissuring (Grade II)이 관찰되었으며, 미세 골절술을 시행한 6예 중 1예에서 연골의 Fasciculation (Grade III)이 관찰되었고, 3예에서 연골하 골의 노출 (Grade IV)이 관찰되었다.

결 론

이차적 관절경술상 자가 골연골 이식술은 미세 골절술에 비하여 연골의 연속성과 강도 면에서 훨씬 우수하였으며, 미세 골절술 후 연골 치유는 6개월제에도 완전치 않아 완전 체중 부하나 운동으로의 복귀는 6개월 이후로 늦춰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